

[별첨 1]

입 사 지 원 서

1. 인적사항					
직급 및 직무분야		임기직 7급		접수번호	
성 명		이 진 영			
현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30번길 16 1423호			
연 락 처(휴대폰)		010-7277-8280		전자우편	paxilbo@naver.com
2. 교육사항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					
교육 구 분	교육기관	전공 및 교육과정			수학구분
	학교교육	예술학협동과정			수료
	직업훈련	KT&G 상상 스타트업 캠프			졸업
직무관련 교육 주요 내용(직무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간략한 기술)					
유희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기획 및 운영					
3. 경력사항 (지원하는 직무관련 경력사항 기술 / 최근 근무기간 순으로 정확히 기술)					
근무처명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인천서구문화재단		계약직	2020.04.01.~2020.12.31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서 작성 및 거버넌스 구축	
			~		
			~		
4. 자격사항 (지원직무와 관련한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5. 기타사항 (증빙서류 제출 필수)					
보훈여부		비대상		보훈가점비율 (대상자만 기재)	
병 역	필	계급	병장	복무기간	2010.05.20.~2012.03.03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3월 1일

작성자 : 이 진 영 (인 포함 사항)



[별첨 2]

직무 및 경력 소개서

※ 지원직급(분야)와 관련된 **직무경험 또는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1	기관(단체)명 :인천서구문화재단	근무기간 :2020.04.01. ~ 2020.12.31.	직위(직책) : 계약직
담당업무	문화도시 조성계획서 작성, 시범사업 기획 및 진행		
“권역 라운드테이블에서 예비문화도시 까지”			
라운드테이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35번의 만남 90명의 연결			
2020년 4월부터 인천 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주민과 지역 활동가, 문화공간 운영자 등 주민들과 직접 연락하고 소통하는 권역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단계별로 각 권역마다 생각하고 있는 인천 서구의 이미지와 권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의견을 가지고 주민 분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기획안 까지 도출했습니다.			
권역별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다 보니 각 권역마다 어떤 회의를 진행했고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다른 권역에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5개 권역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던 주민분들과 퍼실리테이터 모두를 모아 주민포럼을 기획 및 진행했습니다.			
각 권역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의견수렴이 됐고, 이를 권역 특성에 맞는 사업 기획안으로 발전했는지를 공유하고 ‘타 권역이 바라보는 우리 권역’을 통해 각 권역에 알지 못했던 권역의 이미지 및 특성, 활동을 논의하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주민분들을 찾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간을 찾아 주민과 공간을 연결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문화공간, 청소년, 청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과 공간을 발굴했습니다. 상반기와는 다르게 권역 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는데, A 권역의 주민을 B 권역의 공간에서 A, B 주민이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고 B 권역주민을 C 권역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하는 등 권역과 권역이 소통할 수 있고, 주민과 공간, 권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5개 권역, 권역 간 라운드테이블 진행 후 통합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원도심의 복합 문화공간에서 권역 간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주민분들을 1테이블에 5명씩 그룹을 형성하여 15분씩 그동안 나온 의견을 공유하고 15분 뒤에는 자리를 바꿔 참석한 주민 모두가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 했습니다.			

주민협의체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19명과 함께하는 10번의 만남

2020년 4월부터 6월의 상반기 라운드테이블이 종료될 즈음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권역의 현안과 지역주민의 활동, 문화도시 조성의 의견을 제시할 19명의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 모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현황 및 조성계획서 내용 공유를 진행하였고, 문화도시 추진체계 구축 및 주민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19명 주민협의체를 분과로 나누어 각 권역의 현안을 모색하고, 주민과 활동가 그리고 공간을 발굴하도록 분과회의를 10번 진행하여 아카이빙 후 주민협의체 정기모임에서 공유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진 11월 중순부터는 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살롱

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8번의 주민살롱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살롱을 기획 및 운영했습니다. 주민살롱은 살롱의 살롱지기를 모집하여 주민이 기획하고 운영해보고 싶었던 소규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총 8명의 살롱지기를 선정하여 기획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연극, 책 리폼, DJ, 줌 회의 교육, 독서토론, 캘리그래피, 엽서 만들기, 미술교육을 진행하였고 신청자는 코로나로 인해 5명으로 제한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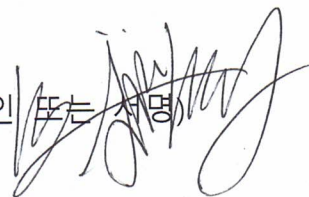
주민살롱은 상반기, 하반기 라운드테이블에서 나아가 지역주민과, 활동가, 공간, 권역을 연결하고 주민이 주민에게 전달하는 경험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 나갔을 때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획 및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8번의 주민살롱에 대한 성과 공유 전시도 기획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 8번의 문화도시 포럼, 9번의 추진위원회와 만남, 8번의 줌 회의, 청년, 청소년 세대 간 줌 라운드테이블 4회를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각 권역에 어떤 주민이 사는지 어떤 활동가가 있는지 연결하여 네트워킹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권역별 연결을 하고 권역 간 연결을 했습니다. 세대별로 먼저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세대 간 네트워킹을 진행하여 세대 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와 세대가 알지 못했던 문화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역의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주민과 같이 논의했습니다. 권역과 주민, 공간을 연결하면서 지역의 공간과 주민의 연결 나아가 권역이 연결되어 문화도시추진단이 없더라도 주민 스스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3월 1일

작성자 : 이진영 (인 또는 서명)



자 기 소 개 서

1. 지원동기 및 지원분야와 관련된 차별화된 본인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다양한 경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자, 통인시장 반찬가게, 창신동 봉제 골목, 사회적기업 창업 문화도시 조성 사업까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 모두 먼저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 같이 어떠한 활동을 해보자고 다가갔습니다. 유희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공부할 땐 직접 유럽에 가서 유희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에 대해 눈으로 직접 보고 공부했습니다.

행동보다는 먼저 공부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저의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기에 프로젝트를 노숙자, 상인, 주민으로 진행할 때 먼저 이야기를 듣고 현황과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합니다. 지역과 각각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했습니다.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왔고 활동해 왔습니다. 저의 활동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 간접적 문화 교육으로서 그들의 자생력, 생활환경 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채용 직무분야에 관한 직무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개념으로 개념이 문화로”

문화도시는 지역의 역사와 주민의 살아온 환경, 살아온 삶의 방법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뀌고 쌓이는 생활 습관을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시키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환경, 습관, 방법 등이 모여 문화로 자리 잡히고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거버넌스라 생각합니다.

저는 문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연결해 주고 체험과 경험을 통해 개념을 만들고 개념들이 모여 문화로 발전된다고 정의해봤습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경험을 얻은 지역주민이 그 경험을 다른 지역주민에게 얘기했을 때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들이 나아가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지역의 문화를 연결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있어 그리고 시범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기획할 때 한 개인의 의견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실제와 차이가 있는 작품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주민은 보이는 작품 혹은 공연이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히게 되고 그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퍼트려 문화로 자리 잡히게 된다면 이는 문화기획, 문화 교육에 있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주민과 공간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야 하고, 지역의 문화는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문화도시 사업이 주민을 따라가지 못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쌓여가는 기간

동안 일정 소수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문화는 아닌지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역주민과 활동가, 원주민과 이주민의 의견 격차를 천천히 좁혀나가는 사업이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지역의 특성은 무엇이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연결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저의 수행계획입니다.

3. 팀을 이루어 사업을 운영할 때 본인의 강점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였던 사례를 기술하십시오.

“기소불육 물시어인”

2020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했을 때 수많은 라운드테이블과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 분과회의, 포럼, 시범사업, 영상제작, 홍보, 조성계획서 작성 등 시간이 부족하여 팀원3명이 팀원 능력에 맞게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팀원이 조금 망설여하는 일 능력과 맞지 않는 일은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각 권역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던 주민분들과 퍼실리테이터가 참석하는 주민포럼 때 갑자기 발표자와 진행자가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 행사를 진행하고 발표를 하면서 망칠 수 있던 행사를 끝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4. 부평구문화재단 내에서 본인의 직무분야에 대한 역할과 재단 내 타 기관 및 부서와의 상호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동시대 문화”

문화도시사업은 지역과 공간, 사람, 세대, 직업을 연결하여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행정, 주민이 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간접적 교육을 통해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동시대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구축함에 앞서 재단의 네트워크, 협력사항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 내 아트센터, 뮤직랩,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도시 사업 외 참여하는 주민들과 활동가, 예술가들을 문화도시 주민과 연결하여 더욱 다양하고 다원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타 부서와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5.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업윤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문화의 공익적 기능”

문화의공익적 기능은 다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문화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즉 공익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특정한 소수의 이익이나 의견을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문화도시사업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되도록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익을 제공해야 하므로 더 많은 주민과 활동가, 예술가들을 위해 조금은 융통성 없게 이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3월 1일

작성자 : 이 전 명 (인 도봉서명)